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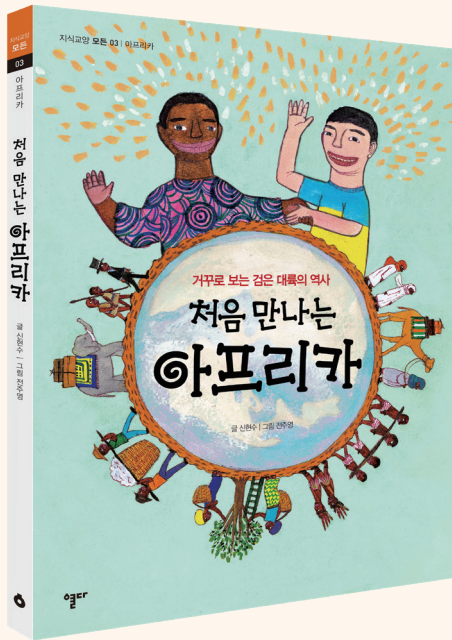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처음 만나는 아프리카

글 신현수 | 그림 전주영

스폰북



처음 만나는 아프리카

- 글: 신현수
- 그림: 전주영
- 출판사: 스펀북
- 정가: 11,000원
- 분량: 180쪽
- 대상: 초등 5~6학년
- 키워드: #사회 #역사 #아프리카 #식민지

책 소개

아프리카 하면 가난과 질병, 전쟁과 혼란 같은 단어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편견과는 달리 아프리카는 무역이 발달하고,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던 대륙이었어요. 이런 편견이 생긴 건 바로 15세기 이후의 노예무역과 식민지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보아야 합니다.





독서 전



1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검은 대륙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2 표지 속 그림을 살펴봅시다.
다양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
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
이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아요.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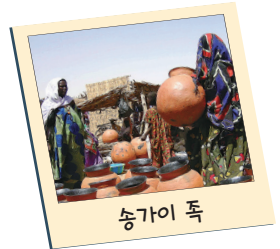
• 다음은 서아프리카의 황금시대를 이끈 주요 부족들입니다. 부족 이름과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가나 왕국을 세운 부족이야.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지. 이슬람교를 믿지만 전통 종교를 떠받들기도 해. 일부다처제 사회인데,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내야 한단다.



말링케 족

만데 족 또는 만딩고 족이라고도 해. 부계 사회라서 가계, 재산 상속, 지위 계승 등이 모두 아버지 쪽 혈통을 중심으로 이뤄진단다.



송가이 족

9세기 말에 사하라 무역을 활발히 했고, 11세기 초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어. 14세기 말까지 가나와 말리의 지배를 받다가 15세기 후반에 말리를 무너뜨렸지.



쇼닌케 족

15세기 이후 하우스 상인들은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역을 했어. 지금도 대부분이 목축업과 상업에 몸담고 있단다.



요루바 족

대체로 농경 생활을 하는 부족이야. 남자들은 농사일을 주로 하고, 더러는 대장장이나 조각가 등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해. 여자들은 대부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데, 남편의 지위에 따라 맡는 일이 달라진단다.



하우스 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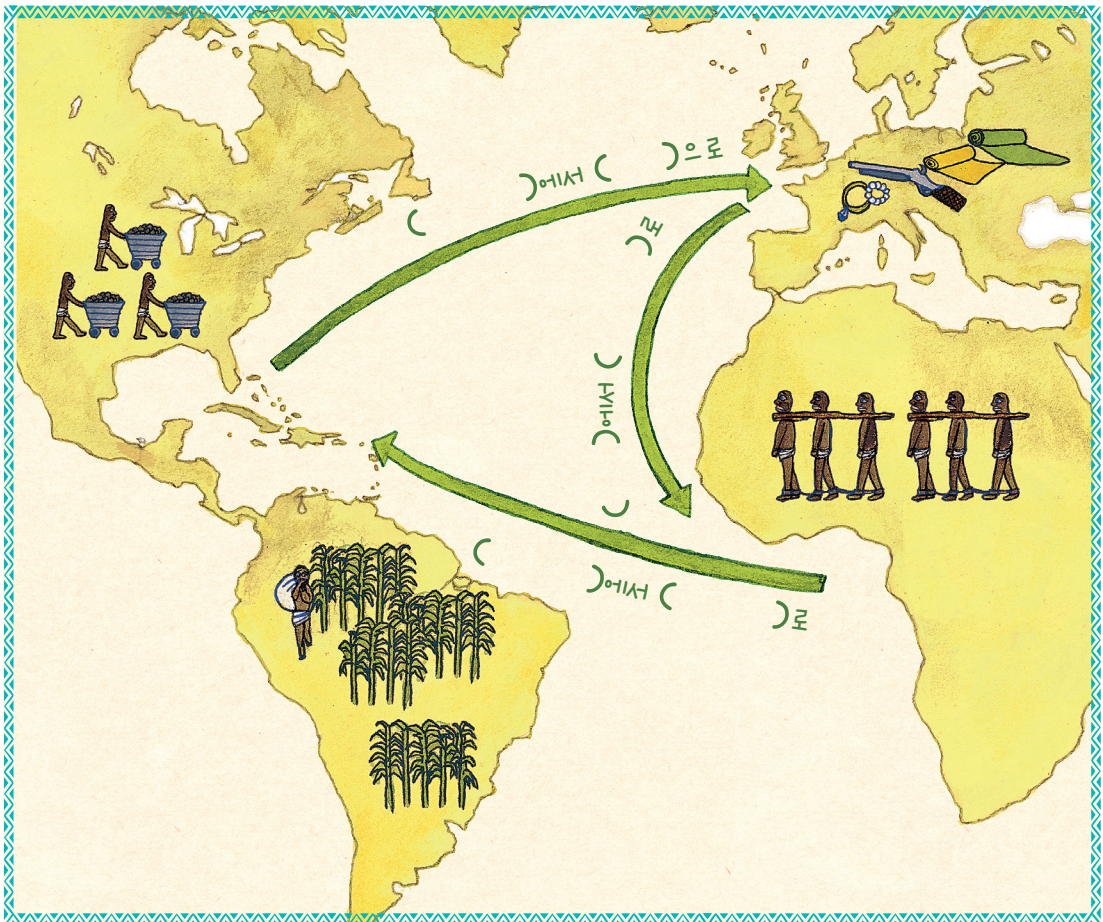


독서 중

• 삼각 무역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76~77쪽] 대서양 노예무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 대륙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어. 세계 지도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그림을 그려 보면 삼각형이 된단다. 그래서 대서양 노예무역을 대서양 삼각 무역이라고도 해.

대서양 삼각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 간 노예들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그들의 고통을 발판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





• 본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112쪽] 한편으로는 가혹한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도 노예들이 저항하는 한 방법이었어.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에는 노예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뜻있는 미국인과 노예들이 힘을 합쳐 만든 ()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이 있었어. ()는 1815년에 처음 시작되어 1830년대에는 북부 모든 지역에까지 퍼졌어. 특이한 점은 () 구성원들이 비밀을 유지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 철도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노예들이 탈출하는 길은 '노선', 탈출을 돕는 사람은 '차장', 도중에 숨어 있거나 다음 차장에게로 이어지는 장소는 '정거장', 탈출에 나선 노예는 '소포' 혹은 '화물'이라고 불렸거든.

[162쪽] 20세기 초, 유럽 나라들의 식민 통치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 점차 퍼져 나갔어. [162쪽] 20세기 초, 유럽 나라들의 식민 통치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는 ()란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에 저항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자는 사상이었어.

[166쪽]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라는 심한 인종 차별 정책을 펴는 바람에 백인과 흑인 사이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어. 게다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전쟁도 수없이 벌어졌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대서양 노예무역 시대에 이어 유럽의 식민지 시대가 곧바로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추스르고 일어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159쪽] ()는 황금 해안이라는 뜻인데, 유럽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야. 주변에 황금이 많아 15세기부터 유럽과 황금 무역을 하면서 부를 쌓았고,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노예무역으로 번역을 누린 곳이지. (중략) 그러자 은크루마를 중심으로 한 이곳 지도자들은 통일 () 회의라는 독립운동 기구를 만들었어. 이 기구는 "지금 당장 독립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투쟁을 시작했지.

[보기]

아파트헤이트 골드 코스트 지하 철도 범아프리카주의



독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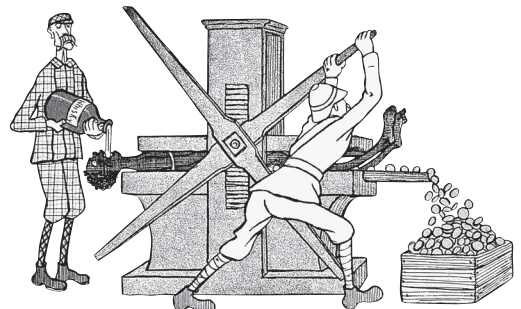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67쪽] 특히 식민지 시대에 유럽 나라들이 제멋대로 그어 놓은 국경선은 아프리카 각국에서 부족 간 갈등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 그때 유럽은 서로 싫어하거나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던 아프리카 부족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한 나라로 묶어 놓았잖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부족 간 갈등은 물론 종교 문제나 권력 투쟁으로 내전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많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을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곳도 적지 않지. 생활환경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라서 질병에 걸리는 이가 많은 곳도 아프리카야.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오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던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 지금보다 나은 아프리카, 더욱 살기 좋은 아프리카를 꿈꾸면서 말이야. 2001년에 닷을 올린 아프리카 연합은 아마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희망의 구심점이 될 거야.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열강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독서 후

• 본문 103~115쪽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저항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맞섰던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2 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